

《西域行程記》와 明初의 西域*

송정화**

<목 차>

1. 서론
2. 《西域行程記》 概述
 - 2.1 版本
 - 2.2 作者
3. 《西域行程記》에 나타난 서역
 - 3.1 서역의 개념과 지리범위
 - 3.2 서역: 독립적이고 강력한 제국
 - 3.3 멀고도 척박한 서역행로
4. 《西域行程記》 당시의 명과 서역
 - 4.1哈密을 둘러싼 명과 別失八里의 관계
 - 4.2 명과 티무르제국의 관계
5. 결론

1. 서론

《西域行程記》는 陳誠이 永樂 11년부터 13년(1413~1415)에 이르는 2년간의 西域 使行 일정을 날짜와 날짜, 旅程의 순으로 기록한 使行錄이다. 진성은 英락 13년(1415) 10월에 《西域行程記》를 《西域蕃國志》, <獅子賦>와 함께 明 成祖에게 진상하였다. 《西域行程記》가 저술된 당시를 살펴보면, 몽골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27).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zzhen@naver.com)

족의 元을 중원으로부터 몰아내고 漢族의 나라를 재건한 명은 개국 초부터 주변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거대제국 원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명의 서북지역에서는 원의 남은 세력들이 汗國을 세워 칭기즈칸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건재하고 있었다. 또한 14세기 말부터는 티무르제국이 중앙아시아를 통일하면서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느 시기보다 서역과 정치·군사적으로 침예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명은 서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잠시 담보하고 동남아시아로 시야를 돌려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명이 영락 연간에 宦官 鄭和를 파견해 동남아시아와 ‘朝貢’을 통한 외교관계를 새롭게 구축한 이면에는 당시 서역으로의 진출이 쉽지 않았던 원인도 있었다. 鄭和의 원정을 계기로 명은 동남아시아로는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지만 서역과는 원활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404년 티무르제국이 명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면서 서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티무르가 사망하면서 티무르제국의 명 침공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명은 이후로도 서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명은 홍무 연간부터 영락 연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고 공물을 보내어 賞賜의 예를 다했다.

《서역행정기》는 15세기 초 명의 사신이 서역으로 가는 실제 使行의 여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그래서 清代에 간행된 《明史》〈西域傳〉에도 진성의 《서역행정기》와 《西域蕃國志》의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西域行程記》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관련된 연구 업적이 부재하며 중국에서도 몇 편 나와 있긴 하지만¹⁾ 분석의 시각에 있어서

1) 王繼光, 《陳誠及其西使記研究》(北京: 中華書局, 2014年 6月), 張文德, 〈周連寬先生校注本《西域行程記西域蕃國志》拾遺〉, 《西域研究》(2004年 第3期), 王繼光, 〈《西域行程記》與別失八裏西遷考〉, 《西域研究》(2007年 第2期), 郭嬌, 〈《陳竹山文集》研究〉(新疆師範大學 中國古典文獻學 碩士論文, 2015年 5月), 趙楠, 〈《西域行程記》和《西域蕃國志》〉, 《西域圖書館論壇》(2012年 第4期), 馬駿騏, 〈陳誠和《西域行程記》〉, 《貴州社會科學》(2000年 第5期), 張幹, 〈陳誠西使路線東段相關歷史地理研究〉(暨南大學 歷史地理學 碩士論文, 2008年 5月).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즉 진성의 서역행정을 명의 선진문명을 서역에 전파하기 위한 위대한 행보였다고 보는 것이 이들 연구 성과물들의 일관된 논조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의 다소 편향된 중국 중심적인 시각을 지양하며 《서역행정기》를 통해 당시 명과 서역의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명이 서역과 우호적인 외교를 위해 고심했던 노력의 흔적들을 찾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 《西域行程記》 概述

2.1 版本

서역에 두 번째 사행을 갔다가 명으로 귀환한 진성은 永樂 13년(1415) 10월에 《西域行程記》와 《西域蕃國志》, <獅子賦>를 써서 명 成祖 永樂帝에게 바쳤다. 그러나 正統 연간에 진성의 후예가 《竹山文集》을 편찬하여 진성의 글을 수록하는 과정에서 《서역번국지》와 <사자부>만 싣고 《서역행정기》를 누락하면서 《서역행정기》는 이후로 鈔本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서역행정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上海圖書館에 收藏된 것으로, ‘譚仲修手校一過’라고 서명이 된 清代 《豫恕堂叢書》 <獨寤園叢鈔四種>의 ‘擬刊寫樣本’이 있다. 이 판본에는 《서역행정기》 1권이 《서역번국지》 1권, <北虜事迹> 1권, <西番事迹> 1권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²⁾

그리고 《豫恕堂叢書》본 《서역행정기》에는 원래 진성이 서역으로 갔던 노선을 그린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서당총서》는 清代 사람인 沈登善이 편집했고 光緒 연간(1875~1908)에 출판되었다. 따라서 清末까지는 지도인 ‘西使行程圖’가 문자기록들과 더불어 전해졌으며 심등선이 《서역행정

2) 王繼光, 《陳誠及其西使記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4, 152쪽.

기》를 《예서당총서》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이 지도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³⁾

《서역행정기》의 또 다른 판본으로는 《國立北平圖書館善本叢書》본이 있다. 《국립북평도서관선본총서》는 抗戰 시기에 당시 北京圖書館의 전신인 北平圖書館이 주도하여 도서관 내에 수장된 고적들을 발굴하고 기타 수집한 자료들을 보충하여 1000권의 분량으로 정리한 것이다.⁴⁾ 이 작업은 1936년에 謝國楨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국립북평도서관선본총서》 第1集에 《서역행정기》와 《서역번국지》 2종이 수록되어 있다.⁵⁾ 본고에서는 《국립북평도서관선본총서》에 의거하여 《예서당총서본》을 교감하고 2000년 北京中華書局에서 ‘中外交通史籍叢刊’ 시리즈 중 하나로 펴낸 《서역행정기》를 저본으로 삼았다.⁶⁾

2.2 作者

《서역행정기》의 작자에 대해서는 본래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陳誠의 단독 저작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陳誠과 李暹이 함께 썼다는 설이다. 셋째, 陳誠과 李達이 썼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중 陳誠이 단독으로 《서역행정기》를 썼다고 보는 주장이 우세하다. 姚曉菲는 《서역행정기》와 《서역번국지》의 작자를 모두 진성 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아예 李暹을 언급하지 않았

3) 王繼光, 앞의 책, 156쪽.

4) 《國立北平圖書館善本叢書》 1000권은 중국 국가도서관의 전신인 北平圖書館 所藏 甲庫善本の 精髓를 정리한 것으로 지금은 臺北故宮博物院에 보존돼 있다. 그 중에는 宋刻本 75종, 金刻本 4종, 元刻本 131종, 明刻本 2000여종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북평도서관선본총서》는 淸學部圖書館에 수장된 內閣大庫舊藏을 기초로 하였고 거기에 江南舊家藏書, 敦煌經卷, 文津四庫와 기타 학자들이 수집한 장서가들의 오래된 초본들을 함께 집어넣어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고적의 정리 작업은 1940년대 抗戰 시기를 겪으면서 도서관의 희귀본들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도서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5) 王繼光, 앞의 책, 17쪽.

6) 이 책에는 《西域行程記》가 《西域蕃國志》, 《咸賓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明]陳誠著, 陳連寬 校注, 《西域行程記》, 北京: 中華書局, 2000년 4월.

다.7) 馬駿騎 역시 《서역행정기》가 陳誠의 단독 저작이며 李暹의 이름은 덧붙여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가 근거로 든 것은 正統 12년(1447)에 國史總裁 王直이 《서역행정기》와 《서역번국지》의 序를 지었는데 李暹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8) 王繼光은 交友 관계에 있어서 陳誠이 신중한 성품이었으므로 자신을 수행해 使西域한 李暹을 공동저자로 올렸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의 《吉安府志》9)의 진성에 대한 기록은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진성은 관직에 있을 때에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직분을 지켰고 사람들과 멋대로 사귀지 않았다. 관직에서 물러나 30여년을 지낼 때에는 세 상일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으며 자연에서 거닐며 속세 밖에서 초연하게 지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였다.10)

위의 기록에 따르면 진성은 관직에 있을 때에는 조심스러웠으며 사람과 교유할 때에도 신중했다.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세상사에 초연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러한 진성의 성품으로 미뤄봤을 때 그는 자신을 수행해 동고동락하면서 험난한 서역 길을 함께 했던 李暹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마움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성이 책 서두에 자신을 동행했던 이섭을 존중하여 함께 이름을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馬駿騎에 따르면 명 萬曆 연간 焦竑의 《獻征錄》, 淸 康熙 원년(1677)에 賈漢이 저술하고 李楷가 편찬한 《陝西通志》 권28 <人物>, 강희 7년 梁禹甸이 쓰고 吳景恂이 찬한 《長安縣志》 권2 <選舉志> 등에는 이섭의 생평은 나오지만 그가 진성과 《서역행정기》를 함께 저술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11) 그

7) 姚曉菲 編著, 《明清筆記中的西域資料滙編》, 北京: 學苑出版社, 2016.

8) 《竹山文集》 卷首 <序>, 馬駿騎, <陳誠和西域行程記>, 《貴州社會科學》第5期, 2000. 05. 22, 103-104쪽 재인용.

9) 淸 順治 17년(1660)에 李興元이 출판한 책이다. 총 12책으로 되어 있다.

10) 《吉安府志》 <列傳·陳誠傳>: 誠居官畏慎守職, 不妄與人交. 居閑三十餘年, 絕口不言外事, 徜徉泉石, 超然世外, 時人高之. 王繼光, 앞의 책, 40쪽.

11) 馬駿騎, 앞의 논문, 104쪽.

러므로 본고에서는 姚曉菲, 王繼廣, 馬駿騎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서역행정기》를 진성의 단독 저작으로 보고자 한다.

작자인 진성(1365~1457)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며 그중에서 《明史稿》¹²⁾의 기록이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橫雲山人 王鴻은 《명사고》를 편찬하면서 진성의 傳을 썼다.

진성은 자가 子實이며 吉水사람이다. 洪武 연간에 進士에 급제했고 行人으로 沙里畏兀兒에 사신으로 가서 安定, 曲先, 阿端 五衛를 세웠다. 또한 塔灘里로 사신으로 가서 夷人들에게 황제의 말씀을 전했다. 얼마 안 있어 동료인 呂讓과 함께 安南에 사신으로 가서 安南이 침입했던 思明 지역을 반환하고 조공들을 사양하였다. 돌아와서 翰林檢討에 발탁되었고 吏部員外郎을 지냈다. 영락 11년 哈烈에서 입공했고 진성을 보내 中官 李達와 戶部主事 李暹 등과 함께 哈烈的 사신이 귀환하는 것을 전송했으며 서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했다. 진성 등은 哈烈(헤라트), 撒馬兒罕(사마르칸트), 俺都淮(안드코이), 八答黑商(바다산), 迭里迷, 沙鹿海牙(샤호루하야), 達失干(타슈켄트), 卜花兒(부하라), 塞藍(사이람), 渴石(케쉬), 養夷, 別失八里(베쉬바릭), 火州, 柳城, 土魯番(투르판), 鹽澤, 哈密(하미)의 총 17개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천자의 신성함과 중국의 광대함 그리고 초무하려는 황제의 뜻을 알렸다. 그 군장들은 기뻐하면서 모두 명과 교류하고자 했고 각각 사신을 파견해 진성 등을 따라서 명에 들어가 조공하였다. 진성은 바로 그 산천과 성곽들 그리고 그 풍속과 물산을 기록해 西域記를 지어서 헌상했다. 황제는 기뻐하며 극진하게 칭찬했고 상을 내렸으며 진성을 郎中으로 발탁했고 나머지 사람들의 진급에도 차이를 두었다. 14년 哈烈, 撒馬兒罕, 俺都淮와 失刺思의 여러 나라들이 또 사신을 보내 입공했다. 황제는 그들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진성에게 中官 魯安 등과 함께 사자가 귀환하는 것을 배웅하도록 했다.....사행에서 돌아와 右參政까지 승진했고 사망했다. 진성은 여러 번 사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西土를 두루 다녔으며 진성이 이른 곳의 추장은 그의 위신에 복종하며 대부분 귀순하였다.¹³⁾

12) 明대 역사를 기술한 紀傳體의 사서이다. 萬斯同, 王鴻緒 등이 雍正 元年(1723)에 진상했다. 《橫雲山人明史稿》라고도 부른다. 成書 시기는 《明史》(1679~1739)보다 빠르다. 모두 310권이며 本紀 19권, 志 77권, 表 9권, 列傳 205권으로 되어 있다. 乾隆 초에 나온 《명사》는 대부분 萬斯同이 편한 《명사고》를 기초로 하였다.

13) 《明史稿》: 誠, 字子實, 吉水人, 洪武中舉進士, 以行人使沙里畏兀兒, 立安定, 曲先, 阿端五衛. 又使塔灘里招諭夷人. 尋偕同官呂讓使安南, 命還所侵思明地, 卻其驢. 還, 擢翰林檢討, 歷吏部員外郎. 永樂十一年, 哈烈入貢, 詔誠偕中官李達, 戶部主事李暹等送其使臣還, 遂頒賜西

위의 기록에 보이는 진성의 字 子實은 子魯의 오류이다. 그의 자는 朴齋라고도 했고, 호는 竹山이다. 江西 吉水(지금의 江西 吉安) 사람이다. 洪武 27년(1394)에 進士에 급제하여 行人司 行人으로 임용되었고 후에 翰林院檢討, 廣州布政使左參議, 吏部驗封清吏司主事, 員外郎을 역임하였다. 그는 총 5회에 걸쳐서 서역으로 출사했으며¹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서역행정기》는 그가 두 번째로 사행 나갔을 때에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¹⁵⁾

3. 《西域行程記》에 나타난 서역

3.1 서역의 개념과 지리범위

《서역행정기》에 나타난 명초의 서역 인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명 이전 시

域諸國。誠等乃遍歷哈烈，撒馬兒罕，俺都淮，八答黑商，迭里迷，沙鹿海牙，達失干，卜花兒，塞藍，碣石，養夷，別失八里，火州，柳城，土魯番，鹽澤，哈密，凡十七國，諭以天子神聖，中國廣大，所以招懷之意。其君長欣然咸欲自達，于是各遣使者隨誠等入朝貢。誠輒圖其山川城郭，志其風俗物產，爲西域記以獻。帝悅，褒賚甚渥，擢誠郎中，餘進秩有差。十四年，哈烈，撒馬兒罕，俺都淮與失刺思諸國復遣使入貢。帝嘉其誠，詔誠偕中官魯安等送使者歸……使還，累官右通政，卒。誠數奉使，輒迹遍西土，所至酋長服其威信，多歸附者。王繼光， 앞의 책, 39-40쪽 재인용.

- 14) 陳誠의 西域 使行은 총 5회에 걸쳐 이뤄졌으나 이중 실제로 서역에 간 것은 4번이었다. 첫 번째는 洪武 29년(1396) 3월부터 9월까지 서역의 撒里畏兀爾 지역으로 가서 安定, 曲先, 阿端의 衛를 설치한 것이다. 두 번째는 永樂 11년(1413) 9월부터 13년(1415) 10월까지 哈烈 등 나라의 사절단이 귀국하는 것을 護送하면서 서역의 나라들에게 賞賜한 것이다. 세 번째는 永樂 14년(1416) 6월부터 永樂 16년(1418) 4월까지 사행한 것으로 지점과 임무는 두 번째와 같았다. 네 번째는 永樂 16년(1418) 10월부터 永樂 18년(1420) 11월까지이며 出使 지점과 임무는 앞서와 같았다. 다섯 번째는 永樂 22년(1424)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중도에 소환되어 서역에 이르지 못했다. 王繼光, 앞의 책, 103-114쪽.
- 15) 《西域行程記》가 몇 번째 사행에 대한 기록인지 또 진성의 사행이 총 몇 번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姚曉菲는 《西域行程記》가 첫 번째 사서역의 기록이라고 보았고 진성은 총 4회 출사하였다고 주장했다. (姚曉菲 編著, 앞의 책, 4쪽) 이에 비해 王繼光은 《西域行程記》가 두 번째 사행의 기록이며 총 5회 出使했다고 보았다. (王繼光, 앞의 책, 103-104쪽) 본고에서는 고전문헌들을 고증한 바탕 위에서 도출된 王繼光의 주장이 비교적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陳誠이

기의 '서역'과 그것이 포괄하는 지리 범위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서역이라는 용어는 중국을 비롯한 한자 문명권에서 근세까지 줄곧 사용해왔다. 유럽인들이 유럽의 동쪽을 아시아 혹은 동양(the Orient)이라고 부르듯이 중국인들은 중국의 서쪽을 서역(the Western Regions)이라고 불렀다. 동양사에서 서역이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 해당하고,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가교역할을 해왔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찬란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고, 문화적으로는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흡수하고 융화하여 특유의 문명을 창조해왔다.¹⁶⁾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정사를 일컫는 24史¹⁷⁾를 보면 《漢書》를 비롯해 《後漢書》, 《魏書》, 《北史》, 《南史》, 《隋書》, 《新唐書》, 《明史》, 《新元史》 등 모두 9개의 사서가 <西域傳>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정사들에서 다른 외국들을 <外國傳> 안에 뭉뚱그려 포함시킨 데 반해 서쪽의 국가들을 <서역전>으로 따로 분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중국은 원대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서역을 온전하게 통치한 적이 없다. 羈縻와 衛所, 朝貢 등으로 서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서역이라는 공간은 결코 쉽게 통합되지 않는 독립적이고도 강한 세력으로 존재해왔다. 서역은 서양으로 통하는 교통과 문명의 요충지였으므로 중국에게 있어서는 우호적인 관계가 늘 소망스러운 대상이었다. 또한 이질적인 이슬람 문화와 독특한 문화 풍속으로 인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으며, 강한 군사력과 호전적인 기질로 인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상이기도 했다.

고대의 전적들 중 '서역'의 호칭이 처음 보이는 것은 前漢시기 司馬遷의 《史記》이다. 사마천은 당시 張騫이 서역 원정 후에 보고한 실제 사실을 근거로

총 5회에 걸쳐 使西域했으며 《西域行程記》는 그중 두 번째 사행에 대한 기록으로 보았다.

16)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2003, 399쪽.

17)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宋書》, 《南齊書》, 《梁書》, 《陳書》, 《魏書》, 《北齊書》, 《周書》, 《隋書》, 《南史》, 《北史》,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新五代史》, 《宋史》, 《遼史》, 《金史》, 《元史》, 《明史》를 말한다. 臺灣에서는 《원사》를 고쳐 쓴 《新元史》 혹은 청의 역사를 기록한 《清史稿》까지 하여 25史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두 책을 모두 넣어 26史로 부른다.

하여 《사기》 <大宛列傳>을 집필했다. 그러나 <대원열전>에는 西北國, 西北外國 등 중국의 서북 지역을 지칭하는 호칭은 등장하지만 '서역'의 의미가 이후 서역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¹⁸⁾ 《사기》 <衛將軍驃騎列傳>에는 漢武帝가 霍去病이 匈奴의 西域王 渾邪를 받아들여 慰撫한 공을 표창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때 '西域王'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후 서역이 지칭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¹⁹⁾ '서역왕'에서 서역은 당시 흉노가 통치했던 天山 남북의 지역을 가리킨다. 즉 《사기》가 집필되던 당시에도 서역의 명칭은 이미 있었지만 그것은 흉노의 통치 영역이었던 중국의 서쪽 즉 천산남북 지역을 가리켰다.

일반적인 서역의 개념 즉 중국의 서쪽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총칭으로서 서역은 후한 《漢書》에 <서역전>이라는 편명으로 처음 등장한다. 현대에는 서역을 정치적으로 직접 통치하고자 張騫을 보내 서역을 원정하고 서역에 西域都護府를 두었다. 그리고 이곳이 외국이지만 한나라의 관할 안에 있음을 명시하고자 했다. 《한서》 <서역전>에 따르면 당시 서역의 지리적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서역은 한 효무제 때에 처음 왕래를 시작했다. 본래 36국이다가 차츰 나뉘어 50여 개국이 되었다.....(서역 제국은) 흉노의 서쪽, 오손의 남쪽이며, 남북으로 큰 산이 있고 중앙에는 물이 있다. (그 범위는) 동서로 6천 여리이며 남북으로는 천 여리이다. 동쪽으로는 한나라와 접했고 옥문과 양관에 의해 막혀 있으며 서쪽으로는 총령으로 차단되어 있다.²⁰⁾

즉 현대 서역의 지리 범위는 지금의 파미르 지역 즉 신강 위구르자치구에

18) [漢]司馬遷, 《史記(全十卷)10》 <傳(四)>, 北京: 中華書局, 1982년 11월 第2版, 3669-3170쪽, 3173쪽.

19) 《史記》 <衛將軍驃騎列傳>: 於是天子嘉驃騎之功曰, 驃騎將軍去病率師攻匈奴西域王渾邪, 王及厥衆萌咸相犇, 率以軍糧接食, 並將控弦萬有餘人, 誅獍驍, 獲首虜八千餘級, 降異國之王三十二人, 戰士不離傷, 十萬之衆咸懷集服, 仍與之勞, 爰及河塞, 庶幾無患, 幸旣永綏矣. 以千七百戶益封驃騎將軍. [漢]司馬遷, 앞의 책, <傳(三)>, 2933쪽.

20)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漢書 外國傳 譯註下》 <西域傳>,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355-356쪽.

해당하며, 파미르 고원 서쪽지역 즉 지금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²¹⁾

魏晉南北朝 시기에 서역은 9국 즉 龜茲, 疏勒, 烏孫, 悅般, 渴槃陀, 鄯善, 焉耆, 車師, 粟特을 지칭했고 나중에는 烏孫과 破洛那 등 조공을 보낸 나라들까지 모두 16국이 포함되었다.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서역은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괄한 지리범주로 인식되었다.²²⁾ 이후 唐代에 이르면 서역의 범위는 더욱 확장된다. 玄奘의 《大唐西域記》, 義淨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 볼 수 있듯이 당나라 때에 서역은 天竺뿐 아니라 波斯(페르시아), 大食(아랍)까지도 포함했다. 《新唐書》 <西域傳>에 따르면 당시 서역에는 泥波羅, 党項, 東女, 高昌, 吐谷渾, 焉耆, 龜茲, 跋祿迦, 疏勒, 于闐, 天竺, 摩竭陀, 罽賓, 康, 寧遠, 大勃律, 吐火羅, 識匿, 箇失密, 骨咄, 蘇毗, 師子, 波斯, 拂菻, 大食 등이 포함되었다.²³⁾ 《唐會要》의 기록에 따르면 당대 서역의 대체적인 범위는 葱嶺以西, 波斯以東, 印度河以北, 鐵門關以南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이었다.²⁴⁾ 당대에 이와 같이 서역의 범위가 확장된 이유는 무엇보다 당의 군사력이 막강했고 서역을 통치하고자 하는 의미도 강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중국 역사상 어떤 시기보다 개방적이었다. 당은 페르시아와 아랍 문명권의 나라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이에 따라 서역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宋代는 서역의 범위에 있어서 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 서역의 개념과 범위에 있어서 한차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바로 元代였다.

엄밀히 말해서 원대 이전 시기까지 서역은 중국의 통치 영역이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원대 이전까지 서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또 여러 정책들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통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몽골족의 원이 세워지면서

21) 田衛疆, <西域的概念及其內涵>, 《西域研究》1998 第4期, 71쪽.

22) 楊建新, <西域辨正>, 《新疆大學學報》, 1981年 第1期.

23)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新唐書 外國傳 譯註下》 <西域傳>,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693쪽.

24) 余太山 主編, 《西域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6, 164쪽.

서역은 실제로 원 정부가 관할하는 통치 영역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元史》에는 <서역전>이 따로 없다. 원대에 서역이란 곧 원의 일부였으므로 서역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대의 史書와 지리지를 보면 서역은 신강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와 아랍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주였고 대체로 唐代의 서역 강역과 일치한다. 즉 원대의 서역은 지금의 서투르키스탄, 티벳, 네팔,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랍 등의 광대한 지역을 망라하는 개념이었다.²⁵⁾

역사에서 서역이 다시 독립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明史》에서다. 《명사》는 4권의 분량으로 <서역전>을 기술하고 있다. 《명사》에는 <서역전> 외에 별도로 외국전도 있다. 《명사》에 와서 다시 <서역전>이 생긴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示唆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명대는 원대와는 달리 서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였다. 즉 서역을 외국으로 볼 수도 없고 중국이라고 하기에는 직접 통치를 하지 못했던 명대의 실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둘째 《명사》는 청대에 기록된 역사기록이므로 《명사》의 4권에 걸친 서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청대의 신강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치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첫 번째 사실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명대에 서역은 이미 중국의 관할에서 벗어나 있었고 몽골족 칭기즈칸의 후예인 동차카타이 한국(1348~1514)과 이후 서차카타이에서 나온 티무르(1336~1405)가 세운 티무르제국(1370~1500)에 의해 실제로 통치되었다. 그리고 진성이 사행을 했던 15세기 초의 명과 서역간의 관계를 보면, 명은 서역에 대해 分封하고 衛를 두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실제로 서역은 명의 관할권 밖에 있었다. 또한 명초에 티무르제국은 바그다드까지 진출했고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1402년에는 오스만 제국에 대승을 거두면서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통치하게 되었다. 1404년 티무르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 명을 원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티무르가 東征 길에서 사망하면서 명을 침략하려던 그의 야망은 성사되지 못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명은 큰 충격을 받았

25) 정수일, 앞의 책, 404쪽.

으며 서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진성의 《서역행정기》는 바로 이러한 명초의 불안했던 서역과의 관계 속에서 명이 추진했던 여러 노력들을 반영하는 기록이다.

3.2 서역: 독립적이고 강력한 제국

명은 건국하면서 본래 원의 강역이었던 서북지역을 온전히 수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원의 후손들이 세운 킵차크 한국, 일 한국, 차카타이 한국 등으로 분열되어 통치되었다. 명太祖는 명초의 국내 기강을 바로 잡는 것만 해도 여력이 없었지만 서역 제국들이 점차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보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洪武帝는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초유하며 우호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서역 제국들은 이러한 명의 적극적인 태도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명과 서역의 관계는 《명사》의 기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홍무 연간(1368-1398)에 태조(1328-1398)가 서역과 교통하고자 하여,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고 초무하여 효유하였으나 먼 지역의 군장들 가운데 온 자가 없었다.²⁷⁾

홍무 연간에 撒馬兒罕 및 別失八里가 모두 入朝하여 공물을 바쳤으나 哈烈은 길이 멀어 오지 않았다. (홍무) 25년(1392)에 관원을 보내어 조서를 내려 그 왕을 曉諭하고 文綺, 綵幣를 하사하였지만 그래도 이르지 않았다. (홍무) 28년(1395)에 給事中 傅安, 郭驥 등을 보내어 병사 1500명을 데리고 가도록 하였으나 撒馬兒罕에게 억류되어 도달하지 못하였다. (홍무) 30년(1397)에 다시 北平 按察使 陳德文 등을 보냈지만 또한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다.²⁸⁾

26) 고마츠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옮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서울: 소나무, 2005, 238-251쪽.

27)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洪武中, 太祖欲通西域, 屢遣使招諭, 而遼方君長米有至者.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2, 370쪽.

위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홍무제 때부터 서역과 교류를 트고자 자주 사신을 파견해 황제의 뜻을 전했고 비단과 화폐까지 보냈다. 즉 명으로서는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역 국가들은 명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티무르제국은 撒馬兒罕에서 명의 사신들을 억류하고 몇 년간 보내주지 않았다. 고대사회에서 사신이란 그 나라의 대표로서 황제의 조서를 전달하는 존귀한 직분을 수행하였고 방문국가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티무르제국은 이러한 명의 사신들을 수년간 억류한 채 풀어주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서역의 티무르제국이 명을 능가할 만큼 강했고 명의 초유와 조공정책은 전혀 유효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洪武帝(재위 1368~1398)에 이어 永樂帝(재위 1402~1424)는 원의 옛 강역을 수복하려는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고 온 천하가 조공해오기를 바랐다. 영락제는 明太祖 홍무제와 建文帝(재위 1399-1402)를 이어 3번째로 왕위에 오른다. 홍무제의 4번째 아들이었던 그는 조카인 건문제(재위 1399-1402)를 쫓아내고 자신이 황제가 되어 명초의 불안정한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가 통치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천하제국이었던 元을 계승하고 강역을 수복하는 것과²⁸⁾ 둘째 온 天下가 명에게 稱臣하는 중화주의의 부활이었다. 그래서 그는 대외정벌을 했고 해외 무역로를 확보했으며 조공시스템을 통해 주변국을 명에게 귀속시키는 천하구도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제왕이 중앙에 거하면서 만국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은 광대한 천지가 모두를 덮고 심는 것과 같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귀의하면 모두 돌보고 다스리며 각자 원하는 바대로 살게 하였다.³⁰⁾

28)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洪武時, 撒馬兒罕及別失八里咸朝貢, 哈烈道遠不至. 二十五年遣官詔諭其王, 賜文綺綵幣, 猶不至. 二十八年遣給事中傅安郭驥等携士卒千五百人往, 爲撒馬兒罕所留, 不得達. 三十年又遣北平按察使陳德文等往, 亦久不還.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앞의 책, 413-414쪽.

29) 宮崎市定, 《アジア史論考(下卷)》, 東京: 朝日新聞社, 1976, 147쪽.

30) 《明太祖實錄》 卷24 <永樂元年十月辛亥>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62), 435쪽, 葛兆光, 《歷史中國的內與外-有關中國與周邊概念的再澄清》,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17, 149쪽 재인용.

영락 연간에 성조는 먼 곳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 신하로서 복종하기를 바랐으므로 서역의 사신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³¹⁾

영락제는 역사상 중국의 황제로서는 처음으로 5번에 걸쳐 漠北親征 즉 고비사막 이북으로의 원정을 감행했고³²⁾ 그 결과 타타르와 오이라트를 멸망시켰으며 몽골족이 지배하던 동북지역의 일부를 회복하여 강역을 黑龍江 하류까지 확장했다. 그리고 이곳에 遼東都司를 설치했고 여진족을 衛所에 편입시켰으며 누르칸도사를 설치했다.³³⁾ 동남쪽으로는 鄭和를 보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일본에 대해 패권을 확립했고 베트남을 정벌하여 명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영락제의 적극적인 외교와 팽창정책으로 인해 명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영락제는 유일하게 서역만은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모두 자신의 세력 안에 두지 못했고 과감한 정벌계획도 추진하지 못했다. 다음의 예를 보자.

成祖가 즉위하여 관원을 보내어 璽書와 綵幣를 가지고 가서 그(撒馬兒罕) 왕에게 하사하였으나 여전히 報命하지 않았다. 영락 5년(1407)에 傅安 등이 돌아왔다. 陳德文은 여러 나라를 편력하면서 각국의 酋長에게 입조하여 공물을 바칠 것을 설득하였으나 모두 길이 멀다는 이유로 (중국에) 오지 않았는데 또한 이 해에 비로소 돌아왔다.³⁴⁾

31) 《明史 外國傳 譯註4》〈西域傳〉: 永樂時, 成祖欲遠方萬國無不臣服, 鼓西域之使歲歲不絕.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4》, 428쪽.

32) 洪武帝가 국가의 창업자로서 대외 발전보다는 국내정치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에 비해 成祖는 내정보다는 대외정책에 비상한 적극성을 발휘했다. 그래서 대대적인 대외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며 그 첫 번째 사업이 바로 漠北親征이었다. 성조는 太祖가 靖難之役으로 인해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대몽고 방위체제를 재건하고자 했고 친히 정벌을 나섰다. 漠北親征은 1410년부터 1424년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寺田隆信·增井經夫 저, 宋正洙 옮김, 《중화제국의 완성》, 서울: 문덕사, 1992, 58-59쪽.

33) 그러나 몽고세력은 영락제의 5번의 막북친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탕되지 않는다. 1410년의 막북친정으로 타타르를 토벌하나 타타르는 수년이 지나서 다시 세력을 회복했고 오이긴 라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락제의 막북친정은 15년의 세월과 막대한 비용을 소모했지만 결국 몽골세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寺田隆信·增井經夫 저, 앞의 책, 60-62쪽.

34) 《明史 外國傳 譯註4》〈西域傳〉: 成祖踐阼, 遣官齎璽書綵幣賜其王, 猶不報命, 永樂五年, 安等還, 德文遍歷諸國, 說其酋長入貢, 皆以道遠無至者, 亦於是年始還. 동북아역사재단 엮

명성조 영락제는 撒馬兒罕에 璽書와 綵幣를 보냈지만 撒馬兒罕은 황제의 명을 무시했다. 심지어 陳德文 등의 사신을 보내어 서역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명에게 조공 바칠 것을 설득했으나 먼 거리를 핑계로 오지 않았다. 즉 명초의 서역과의 관계는 결코 主從의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명이 서역과 교류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우리의 선입견 속에 자리잡아왔던 조공 즉 명과 외국간의 조공관계는 선진적인 명과 교류하기 위해 사방의 蠻夷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재현된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역사 기록들 속에서 15세기 초는 명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국제관계는 명이 천하의 중심으로서 ‘중화’를 과시하고 四方의 蠻夷에게 은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명은 명을 중심으로 한 조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³⁵⁾ 영락제가 동아시아 제국을 건설하려는 웅대한 포부는 그의 일대 동안 유지됐을 뿐 그의 사후에는 평범한 한민족의 국가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³⁶⁾

《서역행정기》 당시에 서역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티무르제국에 의해 호령되고 있었다. 진성의 使西域은 강력한 티무르제국을 회유하여 조공시스템 속에서 명 중심의 천하질서를 재건하고자 했던 당시 명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3.3 멀고도 척박한 서역 행로

진성이 서역행정을 다녀온 시기는 1413년부터 1415년에 이르는 2년간이었

음, 앞의 책, 414-415쪽.

35) 명 통치자에게 朝貢이란 스스로가 天朝大國임을 자처하여 국제지위를 계속해서 제고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정치, 외교, 경제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互市를 계속 수용하고 番上에게 후한 이익이 가도록 해야 했다. 張顯清, 林金樹, 《明代政治史》(下冊),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년, 968쪽.

36) 寺田隆信·增井經夫 저, 앞의 책, 71-72쪽.

고, 《서역행정기》에 기록된 시간은 영락 12년 정월 13일부터 그해 윤9월 초하루까지이며 모두 250여 일간이었다. 또한 기록된 거리는 肅州衛(지금의 甘肅 酒泉)부터 哈烈(지금의 아프가니스탄 哈烈)에 이르는 총 11000여리였다. 《서역행정기》에 따르면 진성의 사절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선으로 서행하였다. 처음 출발은 “永樂 12년 正月 13일 巳時에 출행하여 陝西 肅州爲 城의 北門 밖까지 가서 시냇물 89곳을 지나고 약 5리를 가서 큰 시내를 건넜다. 북쪽 해안에서 응사지신에게 여행길에 사람과 말이 평안하기를 빌었다.”³⁷⁾ 그리고 嘉峪關을 나서서 哈密, 魯陳, 火州, 土魯番을 지나 영락 12년 2월 24일에 土魯番 부근의 崖兒城에서 남북의 두 갈래 길로 나누어 서행하였다. 5월 12일에 사절단은 衣烈河(지금의 伊犁河) 가에 도착해 강을 끼고 또 서행하였다. 15일에 “남북로는 모두 이 강의 양쪽 가에 도착하여 막사를 치고 주둔하였다.”³⁸⁾ 즉 강을 끼고 서로 바라보며 한번 모였지만 계속해서 또 길을 나눠서 전진했다. 한 달여가 지나서 6월 29일이 되자 사절단은 養夷城(지금의 카자흐스탄 경내의 잠빌주) 서남쪽 哈卜速 지역에 주둔하였다. 塞藍의 두목이 사람을 보내서 영접했고 北路에서는 먼저 이곳에 도착하니 서로 만나 하루를 묵었다.³⁹⁾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서역사절단은 南北의 두 노선으로 나눠 서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李達과 陳誠의 사절단은 崖兒城에서 남북의 두 길로 나누어 서행했으며 이중 李達은 北路를 통솔했고 陳誠과 李暹은 南路를 따라 갔다. 그리고 《서역행정기》는 남북로의 사절단 중 南路로 서행했던 陳誠과 李暹의 행정을 기록한 것이다. 책 서두에 李達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남북으로 나눠 가던 사절단은 養夷城 부근에 와서 다시 한길로 합쳐졌고 塞藍(지금의 카자흐스탄 경내의 姆肯特)과 達失干(카자흐스탄의 타슈켄트)을 지

37) 《西域行程記》: 永樂十二年正月十三日巳時, 出行. 由陝西行都司肅州衛城北門外, 過澗水八九處, 約行五里, 度一大溪, 北岸祭西域應祀之神, 以求道途人馬平安. 祭畢安營, 往二日. [明] 陳誠 著, 周連寬校注, 《西域行程記》, 北京: 中華書局, 2000, 33쪽.

38) 《西域行程記》: 南北路皆至此河兩岸安營. 陳誠 著, 앞의 책, 40쪽.

39) 《西域行程記》: 二十九日, 晴, 明起, 向西行, 一路平坦. 約行七十里地方哈卜速安營. 塞藍頭目差人來接. 北路亦先至此相會, 住一日. 陳誠 著, 앞의 책, 44쪽.

나 哈烈(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헤라트)까지 갔다. 즉 《서역행정기》에 수록된 루트는 肅州에서 출발하여 哈烈에 이르는 노선이며 지금의 新疆을 지나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진성 일행은 마지막 중착지인 哈烈에서 9개월의 오랜 시간을 머문다.

《서역행정기》를 보면 진성이 서역으로 가는 여정은 매우 험난하다. 진성은 영락 12년 정월 13일 巳時에 陝西의 行都司인 肅州衛에서 출발한다. 즉 한겨울에 지금의 甘肅省 酒泉縣에 해당하는 척박한 지역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 지역은 河西走廊의 서쪽 끝인 阿爾金山, 祁連山 등과 馬鬃山이 있는 지역이며 높은 산이 연달아 있어서 여행로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서역으로 통하는 요도이기 때문에 진성 일행은 이곳을 출발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진성은 《서역행정기》에 자신이 이동한 행로를 날짜와 날씨, 이동 거리와 지역 상황, 숙박 여부와 숙박 기간 등으로 기록했다. 출발한지 16일째 되는 날에는 지금의 哈密의 赤斤蒙古 부근인 卜隆吉河를 지났으며 당시 상황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28일 맑음. 날이 밝자 일어나서 북릉길하를 건너 서북쪽으로 가서 평원으로 들어섰다. 사방이 광활하고 물과 풀이 전혀 없으며 검은 돌만 험하다. 길을 따라서 죽은 말과 해골이 많다. 북쪽에는 먼 산이 있다. 낮에는 매우 춥다. 약 100여 리를 가도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길가에 멈춰 조금 쉬었다가 하루를 묵었다.⁴⁰⁾

일반적으로 명의 사신들은 서역으로 출사할 때 주로 동절기를 이용했다. 한여름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건너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사신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동절기를 선택해 서역 여행을 갔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겨울에도 사행길이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방은 계속해서 평지였고 물과 풀도 없으며 검은 돌만 험준했다.

40) 《西域行程記》: 二十八日, 晴. 明起, 過卜隆吉河, 向西北行, 入一平川, 四望空曠, 並無水草, 惟黑石磷磷. 沿途多死馬骸骨. 北有遠山. 白日極冷. 約行百餘里, 不得水, 止路傍少憩一宿. 陳誠 著, 앞의 책, 34쪽.

그리고 그 길에서 진성은 자신보다 앞서 갔던 순례자들을 주검으로 만난다. 여행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말이 마실 물이었다. 서역으로의 길은 100리를 가도 물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인간 생존의 극한을 경험케 했다. 식수를 얻지 못한 진성 일행은 결국 길가에서 하루를 묵는다. 이와 같은 목숨을 건 서역으로의 사행은 《서역행정기》 전반에 걸쳐 보인다.

29일 맑음. 일찍 일어나 북쪽으로 갔는데 약 50여리를 가니 비로소 평원이 끝났다. 작은 시내가 언 곳에서 막사를 치고 주둔하였다. 얼음을 깨서 물을 끓여서 사람과 말에게 마시게 했다.⁴¹⁾

17일. 맑음. 아침 일찍 일어나 서북쪽으로 갔는데 높고 낮게 모래가 쌓여 있고 인가는 없으며 길은 조악하다. 약 90여리를 가는데 물과 풀이 조금 있는 곳에서 막사를 치고 주둔했다.⁴²⁾

11일 맑음. 아침 일찍 일어나 서남쪽으로 갔는데 평지를 지나서 약 70여리를 가서 혼탁한 강에 이르렀다. 그곳의 이름은 대참이고 배가 대여섯 척 있어서 짐을 건널 수가 있었다. 말이 물속을 건너다가 빠져서 죽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 하루를 머물렀다.⁴³⁾

서역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사막과 고원지대의 연속이며 인가도 드물어서 사신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얼음을 깨고 녹여서 식수원을 겨우 공급했다. 가는 길에 간혹 깊은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말들을 잃기도 했다. 이러한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명초에는 서역으로 사신들을 계속해서 보낸다. 명이 서역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1368년부터 시작하여 1506년까지 계속되었고 총 33회에 이른다. 그리고 33회의 사행 가운데 29회가 명초인 洪武帝와 永樂帝 때에 이루어졌다. 이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宣德

41) 《西域行程記》: 二十九日, 晴. 早起, 向北行, 約五十餘里, 始盡平川. 有小澗凍冰處安營. 鑿冰煮水, 以飲人馬. 陳誠 著, 앞의 책, 34쪽.

42) 《西域行程記》: 十七日, 晴. 早起, 向西北行, 高低沙磧. 絕無人煙, 路徑粗惡. 約行九十餘里, 略有水草安營. 陳誠 著, 앞의 책, 35-36쪽.

43) 《西域行程記》: 十一日, 晴. 早起, 向西南行, 經平川, 約行七十里. 至一渾河, 地名大站. 有船五六隻, 可渡行李. 馬由水中渡, 泥陷, 死者甚多. 住一日. 陳誠 著, 앞의 책, 44쪽.

帝(재위 1425~1435) 시기에 2회, 景德帝(재위 1449~1457) 때 1회, 正德帝(재위 1505~1521) 때 1회의 서역 사행이 이뤄졌을 뿐이다.⁴⁴⁾ 이 시기에 서역은 차카타이 한국 등 몽골족의 후예와 투르크계통인 티무르제국(1370~1500)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당시 사행의 목적지는 서역 중에서도 撒馬兒罕과 別失八里에 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명초에 홍무제와 영락제는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신들을 서역으로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는 《서역행정기》를 통해 명초의 명과 서역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西域行程記》 당시의 명과 서역

진성의 《서역행정기》와 《서역번국지》에는 서역으로의 행로만 나와 있을 뿐 사절단의 구체적인 행적은 보이지 않는다. 명초에는 서역으로 많은 사절단들이 사행을 다녀왔으며 진성만 해도 5차례에 걸쳐 서역에 파견되었다. 당시의 사행록으로는 《서역행정기》와 《서역번국지》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아마도 사신들의 사행 목적과 임무는 국가적인 기밀이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서역행정기》 당시 사절단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명사》 <서역전> 등 역사, 지리 등 방증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진성의 사행 목적과 당시 서역과의 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다.

www.kci.go.kr

44) 滕謙, <明朝外交使節研究>, 山東師範大學 歷史地理學 碩士學位論文, 2010年 4月 20日, 17쪽.

4.1哈密을 둘러싼 명과 別失八里的 관계

진성은 哈密城에서 비교적 긴 시간인 5일을 머문다.⁴⁵⁾ 哈密⁴⁶⁾은 元의 통치를 받았고 명대에는 몽골족의 통치에서 벗어나 명과 차타카이 한국로부터 모두 간섭을 받고 있었다. 특히 명초의 홍무제와 영락제는 安定衛 다음으로 哈密에 衛를 설치했을 만큼 哈密을 서역의 요충지로 중시했고 명의 통치 영역권으로 포함시키고자 노력했다.⁴⁷⁾ 홍무 13년(1380)에는 都督 濮英을 보내서 哈密을 통과해 서역에 이르는 교통로를 뚫어 공식적인 무역로를 개통하였다. 이후의 영락제 역시 哈密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으며 哈密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다. 다음 《명사》 <서역전>의 예를 보자.

당초에 成祖가 忠順王을 책봉한 것은 哈密이 서역으로 통하는 要道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조정의 사신을 영접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여러 번인을 통령하며 서쪽 변강의 울타리로 삼고자 함이었다.⁴⁸⁾

哈密은 서역의 요충지였고⁴⁹⁾ 이 지역에 대한 명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45) 《西域行程記》: 初九日, 晴. 明(早)起, 向西行, 皆平川. 約行九十里, 至哈密城東南果園邊安營, 住五日. 陳誠 著, 앞의 책, 49쪽.

46) 위구르어로 Hami, 몽골어로 Khamil이라 부른다. 오늘날 新疆省 위구르자치구의 가장 동쪽 지역에 해당한다. 기원전 2세기 초에는 匈奴 呼衍王의 땅이었고 伊吾盧라 불렀다. 漢 明帝가 흉노를 정복하면서 이곳에 宜禾都衛를 세웠다. 元代에는 몽골족 통치하에 있으면서 명 영락 연간부터 명에 朝貢을 하기 시작했다. 명은 安克帖木兒(Engke Temür)를 忠順王에 봉했고 이곳에 哈密衛를 설치했다. 이후 哈密은 土魯番에 병합되었고 1678년 몽골의 준가르부에 점령되었으며 나중에는 淸의 영역이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4》, 앞의 책, 33쪽.

47) 영락 2년에 沙州衛, 安定衛, 西番諸衛와 더불어 哈密에도 衛所를 두었다. 이후 4년에는 哈密과 阿端에 다시 위를 설치했고, 8년에는 赤斤蒙古와 哈密에 다시 위를 두었다. 즉 哈密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영락제 시기만 해도 3차례에 걸쳐 위를 설치했다. 이는 영락제 시기에 哈密을 명의 관할 안에 두고자 부단히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48)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初, 成祖之封忠順王也, 以哈密爲西域要道, 欲其迎護朝使, 統領諸番, 爲西域屏蔽.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앞의 책, 47-48쪽.

49) 哈密衛는 명초 關外七衛 즉 安定衛, 阿端衛, 赤斤蒙古衛, 曲先衛, 罕東衛, 罕東左衛, 哈密衛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위였다. 따라서 명의 강역이 끝나면서 동시에 서역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哈密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哈密에 대한 제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했다.

서는 北元 세력으로부터 哈密을 지켜내야 했다. 이에 따라 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거리의 있던 別失八里⁵⁰⁾와 우호관계를 수립함으로써 哈密에 대한 명의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했다. 즉 哈密은 중국에서 서역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도 같아서 몽골족의 세력으로부터 요지를 수호하려는 공동의 필요 때문에 명과 別失八里는 의기투합하였다. 또한 別失八里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哈密이 몽골뿐 아니라 별실파리에게 복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의 우회적인 방책이기도 했다.

別失八里는 14세기 초 차카타이 한국의 篤哇에게 점령되어 장시간 차카타이 치하에 있다가 영락 15년(1417)에 歪思汗이 亦力把里(지금의 新疆 伊寧)로 독립해 이주하면서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다음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명은 別失八里를 하나의 국가처럼 인식했던 것 같다.

別失八里는 서역의 대국이다. 남으로는 于闐과 접하고 북으로는 瓦剌에 이어지며 서로는 撒馬兒罕에 닿고 동으로는 火州에 이르며 동남방면으로 嘉峪關과는 3,700리 떨어져 있다. 焉耆라고도 부르고 龜茲라고도 불렀다. 元 世祖 때에 宣慰使를 설치했다가 얼마 후에 元帥府로 바꾸었는데 그 후에는 제왕이 이곳을 진수하였다.⁵¹⁾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明史》는 別失八里를 서역의 대국으로 기록하고 있다. 《서역번국지》에서도 別失八리가 티무르에게 점령당한 것을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국가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50) 別失八里는 Besh Baliq, Besh Balik의 音譯이다. 別石八里, 鰲思馬, 別石把 등으로도 표기하며 突厥語로는 '五城'을 의미한다. 남으로는 于闐, 북으로는 瓦剌, 서로는 撒馬兒罕, 동으로는 火州와 접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新疆 吉木薩爾 지역이다. 이 지역은 前漢 시기에 車師가 통치했고 6세기 후반에는 突厥이 점령했으며 이후 여러 민족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후 元代에는 몽골 치하에 들어가 원 世祖 때에는 宣慰使가 설치되었다. 14세기 초부터 명초까지는 차카타이 한국에 의해 통치되었다. 영락 15년(1417) 歪思汗이 亦力把里(지금의 新疆 伊寧)로 이주해가면서 別失八里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 別失八리가 있던 지역은 티무르제국의 영역이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4》, 400-401쪽.

51)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4》, 400-402쪽.

그 옛 강역을 살펴보면 동쪽으로는哈密에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撒馬兒罕에 이르며 나중에는 티무르에 의해 점령되어 지금은 경계가 養夷에 이른다……사람들은 대부분 산골짜기 사이에 사는데 아마도 나라의 군주가 미약하여 이웃나라가 침입할 것을 두려워해서인 것 같다.⁵²⁾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명은 別失八里가 이미 티무르의 영역인 것을 알면서도 別失八里를 국가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는 당시 티무르제국이 지닌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티무르제국에는 칭기즈칸의 제국이 가졌던 결속력과 건전함 그리고 안정이 결합되어 있었고 모든 면에서 통일되지 않은 불균형을 보였다. 문화적으로는 투르크, 페르시아적이고 법체계에 있어서는 투르크·칭기즈칸적이었으며, 정치·종교적 원칙은 몽골·아랍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칭기즈칸의 제국이 하나의 원제국으로서 생존력과 결속력이 견고했다면 티무르제국은 명목상 하나의 국가였으나 통일된 결속력은 부재했던 것이다.⁵³⁾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명은 티무르제국을 자신과 동등한 급의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서역행정기》에는 티무르 개인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만 당시 중앙아시아 전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유럽의 일부까지 진출했던 티무르제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이미 티무르제국의 영역이 된 撒馬兒罕과 哈烈도 모두 독립된 나라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티무르제국에 대한 독특한 차별적인 인식은 세계의 중심을 줄곧 ‘중국’으로 놓고 사방의 이민족을 蠻夷로 경시해왔던 천하관의 연장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명은哈密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別失八里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別失八里는 명에게서 무역을 통한 이권을 얻고자 했을 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명초 홍무제는 다음과 같은 장문의 國書를 別失八里 왕인 黑的兒火者에게 보낸다.

52) 《西域蕃國志》: 究其故疆, 東連哈密, 西至撒馬兒罕, 後爲帖木兒駙馬所奪, 今止界于養夷……人多居山谷間, 蓋爲其國主微弱, 恐爲隣境相侵故也. 陳誠 著, 앞의 책, 102-103쪽.

53) 르네 그루세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서울: 사계절, 1998, 587-588쪽.

“짐이 보견대 하늘 아래와 대지 위에 나라를 소유한 자가 그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비록 산과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풍속이 다르다 하지만 好惡의 감정과 혈기의 유별은 일찍이 다른 바가 없었다. 황천이 돌아보고 보우하여 한결 같이 대해왔다. 까닭에 천명을 받아 천하의 군주가 된 자는 위로 천도를 받들어 일신동인하여 크고 작은 여러 나라와 상이한 지역 및 다른 종족의 군민으로 하여금 모든 인덕을 갖추어 장수를 누리는 지경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우방의 원국은 천의를 따라 사대를 함으로써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면 황천이 잘 살피서 또한 장성할 수 있다. 전에 우리 중국의 宋나라 군주가 사치하고 방종하며 나태하고 방탕하여 간신이 정사를 어지럽혔다. 하늘이 비루한 덕을 잘 살피서 이에 元나라 世祖에게 명하여 북방의 사막지대에서 개국의 기반을 창시토록 하여 中原으로 들어와 中華를 통치하여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안정된 것이 70여년이 있었다. 후대에 이르러 국정을 돌보지 않고 부적합한 자를 기용하여 기강이 모두 풀어지게 함으로써 강자는 약자를 능멸하고 중인이 과인을 능욕하여 민생은 한탄하고 원망하여 하늘에 상달하였다. 하늘이 그로 인하여 그 천명을 바꾸어 짐에게 위촉하였다. 짐은 몸소 하늘이 부여한 권력을 쥐고 백성의 주인이 되었다. 무릇 모든 난용 가운데 성교를 맺대로 하는 자로서 짐의 명을 여기는 자는 군대를 보내어 쓰러뜨렸고 짐의 명에 따르는 자는 은덕을 베풀어 어루만져주었다. 이러한 까닭에 30년 동안 諸夏가 안정되고 외번은 신복하였다. 다만 원나라 대신 만자 합날장 등이 아직 잔여의 무리를 거느리고 틈새를 만들어 변경을 침범하여 짐이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니 그 형세를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이다. 군대가 捕魚兒海에 이르자 옛 원나라 제왕과 부마가 그 부속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撒馬兒罕에서 무역하러온 수백 명이 있었기에 짐은 관원에게 명하여 호송하여 귀국시킨 것이 이미 3년이 지났다. 사신이 돌아온 뒤에 왕이 곧 사신을 보내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니, 짐은 매우 가상히 여겼다. 왕은 사대의 성심을 더욱 굳건히 해 통교를 하여 사명을 끊이지 않게 한다면 어찌 장구히 나라를 보호하지 못하겠는가! 특별히 관원을 보내어 위로하고 장려하니, 짐의 뜻을 잘 헤아리기를 바란다.”⁵⁴⁾

위의 예문을 통해 명은 당시에 別失八里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別失八里와의 교류가 끊어질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서신에서는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고 장려한다고 했으나 명의 황제가 이러한 서한까지 보내어 別失八里에게 조공을 회유한 것은 당시 명이 그만큼 別失八里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절실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54)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404-405쪽.

이러한 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別失八里的 왕 黑的兒火者是 명의 사신이 흡족한 공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사신들을 구류한다. 명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던 이 치욕적인 사건은 《명사》 <서역전>에도 보인다.

관철 등이 그곳(別失八里)에 도착한 뒤 왕은 그들이 많은 하사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류시켰다. 환경과 당정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있었다.⁵⁵⁾

명은 특히 건국 초기인 홍무제부터 영락제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신들을 서역으로 보내어 관계개선에 힘썼다. 당시 명이 사신을 보낸 지역은 別失八里와 撒馬兒罕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⁵⁶⁾ 다음의 표를 참고해보자.

| 연도 | 사신 | 관직 및 품계 | 출사국가/ 지역 | 임무 |
|------|-------------------|------------------|---------------|---------------------------|
| 1368 | 미상 | 미상 | 烏斯藏 | 詔諭 |
| 1368 | 許允德 | 陝西行省員外郎(정6품) | 烏斯藏 | 元の 옛 관리를 천거해 北京으로 오게 함 |
| 1368 | 미상 | 미상 | 西番 | 詔諭 |
| 1368 | 許允德 | 陝西行省員外郎 (정6품) | 西番 | 招撫 |
| 1391 | 寬徹 | 主事(정6품) | 別失八里 | 出使 |
| 1391 | 韓敬 | 御史(종5품) | 別失八里 | 出使 |
| 1391 | 唐鉦 | 評事(정7품) | 別失八里 | 出使 |
| 1395 | 傅安 | 給事中(정7품) | 撒馬兒罕 | 賞賜 |
| 1395 | 郭驥 | 給事中(정7품) | 撒馬兒罕 | 賞賜 |
| 1396 | 陳誠 ⁵⁷⁾ | 미상 | 薩里畏兀爾 | 安定衛 설치 靺鞨 招撫 |
| 1397 | 陳德文 | 北平按察使(정3품) | 別失八里/ 撒馬兒罕 | 出使 |

55)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徹等既至, 王以其無厚賜, 拘留之. 敬等二人得還.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앞의 책, 405쪽.

56) 滕謙, 앞의 논문, 53-66쪽.

| | | | | |
|------|-----------|------------------------|------|---------|
| 1403 | 미상 | 미상 | 撒馬兒罕 | 詔諭 |
| 1406 | 劉帖木兒 | 鴻臚寺丞(정6품) | 撒馬兒罕 | 賞賜 |
| 1406 | 把太 | 中官(정4품) | 撒馬兒罕 | 賞賜 |
| 1406 | 李達/ 尙衡 | 中官(정4품)/ 錦衣衛指揮(정3품) | 撒馬兒罕 | 賞賜/賞賜犒勞 |
| 1407 | 白阿兒斯臺 | 中官(정4품) | 撒馬兒罕 | 吊祭 |
| 1408 | 傅安 | 給事中(정7품) | 撒馬兒罕 | 賞賜 |
| 1413 | 李達 | 中官(정4품) | 西域 | 護送使臣 |
| 1413 | 陳誠 | 吏部員外郎(중5품) | 西域 | 護送使臣 |
| 1413 | 李暹 | 戶部主事(정6품) | 西域 | 護送使臣 |
| 1413 | 藍金哈藍 | 錦衣衛指揮(정3품) | 西域 | 護送使臣 |
| 1415 | 陳誠 | 吏部員外郎(중5품) | 西域 | 詔諭 |
| 1415 | 李達 | 中官(정4품) | 西域 | 詔諭 |
| 1417 | 李信 | 中官(정3품) | 別失八里 | 賞賜 |
| 1417 | 丁全 | 錦衣衛指揮(정3품) | 別失八里 | 賞賜 |
| 1419 | 魯安 | 中官(정4품) | 撒馬兒罕 | 護送貢使/賞賜 |
| 1419 | 林春 | 中官(정4품) | 撒馬兒罕 | 護送貢使/賞賜 |
| 1420 | 郭敬 | 中官(정4품) | 撒馬兒罕 | 賞賜 |
| 1424 | 喬來喜 | 中官(정4품) | 烏斯藏 | 出使 |
| 1424 | 鄧誠 | 中官(정4품) | 烏斯藏 | 出使 |
| 1428 | 李信 | 中官(정4품) | 撒馬兒罕 | 賞賜 |
| 1428 | 林春 | 中官(정4품) | 撒馬兒罕 | 賞賜 |
| 1457 | 馬雲 | 錦衣衛都指揮(정3품) | 西域 | 賞賜 |
| 1506 | 劉允 | 中官(정4품) | 烏斯藏 | 護送 |

위의 표를 보면 서역 사절단의 임무는 詔諭, 賞賜, 護送使臣, 出使, 招撫 등이 많고, 그중에서도 詔諭와 賞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詔諭란 황제의 명을 알리는 것이고, 賞賜는 황제가 상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명대에 朝鮮, 日本, 동남아시아의 諸國, 북방의 韃靼 등으로 파견된 사신들은 冊封, 斥責, 解決糾紛 등의 임무도 수행한 것으로 나온다.⁵⁷⁾ 즉 서역 국가들에 대해

57) 滕諱의 논문에는 원래 1396년 陳誠의 使西域의 기록은 빠져있다. 본고에서는 王繼光의 논의에 따라서 보충해 넣었다. 王繼光, 앞의 책, 103쪽.

서는 책봉이나 국내 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직접적인 내정 간섭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타 외국에 비해 서역에 대해서 명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당시 명이 서역을 동등한 관계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외교 정책을 폈음을 말해준다.

명은 사신 관철의 일행이 別失八里에 구류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도 別失八里의 상인들을 구류한다. 그럼에도 別失八里는 관철 일행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즉 명의 위협적인 정책에도 別失八里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명은 別失八里의 상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했고 홍무 30년(1397) 정월에 다시 사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국서를 보낸다.

“짐이 재위에 오른 지 이미 30년이 지났고 서방의 제국들의 상인들이 우리 중국에 들어와 호시를 하니 변경의 관리들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짐은 또한 우리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칙서를 보내 외국상인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사기를 치지 말도록 했다. 이 때문에 당신네 여러 나라들의 상인들은 많은 이익을 얻었고, 변경에서는 소란이 없었다. 이는 우리 중국이 당신네 나라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다. 撒馬爾罕의 상인들은 고비사막 이북에 있는 자들이며 나는 이들을 장차 북쪽 변경으로 갈 때 잡아다 京師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짐은 중국에 머물며 호시할 것을 명한다. 나중에 撒馬爾罕의 사람으로 알려지면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 군장은 조정의 은혜를 깨닫고 사신을 보내어 우리 조정에 조공을 하고 뒷사람을 모시는 예를 차려야 한다. 그런고로 사신 寬徹 등을 당신 나라들의 사신으로 가서 우호 관계를 맺고 왕래하도록 하여 은혜와 신뢰로써 위로하였는데 어찌하여 나의 사신들을 구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생각을 품는단 말인가? 나는 아직까지 여러 나라들의 사신을 한명도 구류한 적이 없다. 당신이 나의 관리를 구류한다면 어찌 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최근 회회 사람들 중에 변경에 들어온 자에 대해서는 중국의 互市에 머물게 하고 돌아갈 때까지 환대하되 돌려보냈다. 회회에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와 처자가 생겼다고 여기고, 짐은 부모와 처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극하게 가졌다. 사람의 지극한 정을 배반하는 것을 인자한 자는 하지 않으니 짐은 관철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회회의 사신들을 돌려보냈다. 이는 다시 사신과 서신을 보내 효유하여, 명 조정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길을 폐쇄해 전쟁의 실마리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書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한은 큰 데 있지 않

고 작은 데에도 있지 않으며, 은혜로운지 노력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너희는 은혜롭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⁵⁹⁾

명태조가 위의 서신을 보내고 진정어린 설득을 하자 別失八里는 1397년에 결국 6년간 구금했던 명의 사신 寬徹 일행을 돌려보냈다. 즉 이러한 관철 구금 사건 하나면 놓고 보더라도 당시 別失八里는 명 황제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는 신하의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했다. 따라서 別失八里에 대한 명의 속내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역번국지》에 나타난 別失八里에 대한 기록은 이러한 양국 간의 부정적인 속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풍속은 사납고 포악하며, 입고 먹는 것은 천하고 더러우며, 군신상하에 기율이 전혀 없다……사람들의 대다수는 산과 계곡 사이에 사는데 아마도 그 나라의 군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여 이웃한 나라들이 서로 침략할 것을 두려워해서인 것 같다.⁶⁰⁾

위의 別失八里에 대한 진성의 부정적인 묘사는 명이 서역의 요도인 哈密을 두고 別失八里와 주도권 경쟁을 오랜 시간 지속해왔고 또 명의 사신이 別失八里에 의해 구금된 일련의 사건들과 유관하다.

이후 영락제는 명 황제의 이름으로 哈密에 忠順王을 세웠다. 즉 명의 꼭두각시 괴뢰왕을 哈密에 세워둔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 토착세력에게 관직을 수여

59) 《明太祖實錄》 권249: 朕既位三十年, 西方諸國商人入我中國互市, 邊吏未嘗阻絕. 朕復敕吾吏民恃強欺漫番商, 由是爾諸國商獲厚利, 疆場無擾, 是我中華大有惠于爾諸國也. 向者, 撒馬兒罕商人有在漠北者, 吾將征北邊, 執歸京師, 朕令居中國互市. 後知爲撒馬兒罕人, 遂俱遣還本國. 其君長知朝廷恩意, 遣使入貢吾朝廷, 亦以其事上之禮, 故遣使寬徹等使爾諸國, 通好往來. 撫以恩信, 豈意拘吾使者不遣. 吾于諸國未嘗拘留使者一人, 而爾拘留吾使, 豈禮也哉. 是以近年回回入邊地者, 且留中國互市, 待寬徹歸, 然後遣還. 及回回久不得還, 稱有父母妻子, 朕以人思父母妻子乃其至情, 逆人至情, 仁者不爲, 遂不待寬徹歸而遣之. 是用復遣使書往諭, 使知朝廷恩意, 毋使道路閉塞而啓兵端也. 書曰怨不在大, 亦不在小. 惠不惠, 懋不懋, 爾其惠且懋哉. 王繼光, 앞의 책, 161-162쪽 재인용.

60) 《西域蕃國志》 <別失八里>: 風俗獷戾, 服食卑污, 君臣上下, 絕無紀律……人多居山谷間, 蓋爲其國主微弱, 恐爲隣境相侵故也. 陳誠 著, 《西域蕃國志》, 北京: 中華書局, 2000, 102-103쪽.

하여哈密에 지속적으로 정치적 간섭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명이哈密에 세워둔 괴뢰왕 충순왕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명은 관리를 보내어 충순왕의 제사를 지내줬고 그의 형의 아들인 脫脫을 왕으로 삼고 玉帶를 하사하였다. 영락제 시기에哈密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던 명과 別失八里와의 관계는 《明史》 <西域傳>의 기록에도 보인다.

이듬해(1404) 6월에 (安克帖木兒)가 다시 진공을 하며 책봉해 주기를 청하자 이에 忠順王에 봉하고 金印을 하사하니, 다시 말을 바쳐 은혜에 감사했다. 그 뒤에 이복가한인 鬼力赤이 그(안극첩목아)를 독살했는데 그 사람들은 병으로 죽었다고 (명 조정)에 알려졌다. 영락 3년(1405) 2월에 (명 조정은)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그의 형의 아들인 脫脫(재위 1405~1411)를 왕으로 삼고 玉帶를 하사하였다.⁶¹⁾

성조는 즉위한 그 해 겨울에, 관원을 파견하여 璽書와 綵幣를 휴대하여 그 나라(別失八里)에 출사토록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別失八리의 왕인 黑的兒火者가 죽고 (그의) 아들 沙迷查干이 그 뒤를 이었다. 영락 2년(1404)에 (사미사간은) 사신을 파견하여 玉璞, 名馬를 바치니 (조정에서) 연회를 베풀어주고 더 많은 하사품을 내려주었다. 당시 哈密의 忠順王 安克帖木兒(재위 1393-1405)가 可汗 鬼力赤에게 독살되자 沙迷查干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토벌하였다. 영락제는 그의 의로움을 가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어 綵幣를 상으로 내려주고 忠順王의 작위를 계승한 脫脫(재위 1405~1411)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였다.⁶²⁾

위의 《明史》의 기록은 명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세를 기록한 것이고 그 성서시기도 명대가 아닌 청대이다. 따라서 명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입장에서哈密에 왕을 봉했고 別失八里에게 공물을 하사했던 것인지 그 실제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 이러한 기록들은 명의 입장에서 나온

61)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明年六月復貢, 請封, 乃封爲忠順王, 賜金印, 復貢馬謝恩. 已而迤北可汗鬼力赤毒死之, 其國人以病卒聞. 三年二月遣官賜祭, 以其兒子脫脫爲王, 賜玉帶.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앞의 책, 37-38쪽.

62)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成祖卽位之冬, 遣官齎璽書綵幣使其國. 未幾, 黑的兒火者卒, 子沙迷查干嗣. 永樂二年遣使貢玉璞名馬, 宴賚有加. 時哈密忠順王安克帖木兒爲可汗鬼力赤毒死, 沙迷查干率師討之. 帝嘉其義, 遣使賚以綵幣, 令與嗣忠順王脫脫敦睦.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앞의 책, 406-407쪽.

것이고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은 조금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시에 別失八里가 명과 연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당시 別失八里는 본래 14세기 중반에 차카타이 한국이 분열되어 중앙아시아의 동쪽에 건설한 모굴한국의 주요 근거지였다. 別失八里는 당시 중앙아시아의 서쪽에서 건립되어 주도권을 쥐고 있던 티무르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1405년 티무르가 명으로 원정을 가던 길에 병사하면서 다행히 티무르제국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別失八里는 서역의 요도인 哈密을 장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哈密을 둘러싸고 북원의 鬼力赤과 충돌했으며 北元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명과의 연합이 필요했던 것이다.⁶³⁾ 그러나 이때에도 哈密에 대한 주도권은 명이 아닌 別失八里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07년(영락 5년)에 명의 宋晟은 영락제에게 哈密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哈密의) 두목 육십 등이 난을 일으켰고 이미 이들을 처단했으나 다른 변란이 염려되니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병해 주시기를 청합니다.⁶⁴⁾

哈密에 대해서 명은 1406년 脫脫을 忠順王에 봉했으나 脫脫이 哈密의 지배층의 반대로 이미 축출된 바 있다. 이후 명이 衛所를 세웠지만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哈密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몽골과 回鶻들이 섞여 살면서 각 민족의 세력 쟁탈의 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서역으로의 要道였기 때문이었다.

哈密城은 평야 한 가운데 있고 주위가 3-4리에 이르며 동북쪽으로 2개의 문이 있다. 사람들은 수백 戶에 이르며 흙집에 작은 방에서 거주한다. 성 동쪽에서 시내가 서남쪽으로 흐르고 果樹林이 두세 군데 있으며 가래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었다.....북쪽으로는 瓦剌 땅에 이르고 1달 정도를 빨리 달리면 서쪽으로 火州 땅과

63) 이수연, 앞의 논문, 38쪽.

64)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明年, 宋晟奏, 頭目陸十等作亂, 已誅, 慮他變, 請兵防禦.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앞의 책, 40-41쪽.

지 가는데 약 1000리에 이른다. 당대에는 이주의 땅이었고 지금은 서북의 여러 오랑캐들이 왕래하는 요충지이다.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거칠고 사나워서 이곳을 지날 때는 반드시 요청이 필요했다. 몽골, 회골이 이곳에서 섞여 살며 의복과 습속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다.⁶⁵⁾

위의 예문을 보면 명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세력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지哈密에 대해서도 거칠고 사납다고 기록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락제 이후로哈密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고哈密은 잠시土魯番의 영향력에 있다가 결국別失八里에게 복속된다. 앞서《명사》〈서역전〉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명은別失八里에게 충순왕脫脫과 잘 지내도록 비단과 폐물까지 보냈다고 했지만哈密은 영락제 이후부터 명의 관할에서 점차 벗어났고 결국 1472년(성화 8년)에別失八里의 세력이 세운亦力把里에 의해 복속된다.⁶⁶⁾

4.2 명과 티무르제국의 관계

4.2.1 撒馬兒罕

《서역행정기》의 여정에서 진성은撒馬兒罕과哈烈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문다.塞藍을 지나서月都孤兒巴에서 하루를 머물자撒馬兒罕에서 사람을 보내어 진성 일행을 마중 나온다.

65) 《西域蕃國志》: 哈密城居平川中, 周圍三四里, 惟東北二門, 人民數百戶, 住土屋矮房. 城東有溪水西南流, 果林二三處, 種楸杏而已……北至瓦剌地面, 疾行一月程, 西去火州地約千里. 在唐爲伊州之地, 今爲西北諸胡往來之冲要. 其人多獷悍, 凡經過此處, 必有求焉. 蒙古回鶻雜處于此, 衣服習俗各有不同者. 陳誠 著, 앞의 책, 112쪽.

66) 《明史》〈西域傳〉에 따르면 1472년(成化 8년) 土魯番이哈密을 복속하여哈密은 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서역전〉에 보이는 土魯番은 사실別失八里의 세력이 서쪽에서 세운亦力把里라고 해야 정확하다. 왜냐하면 土魯番은 이미 1422년(영락 20년)에別失八里에 의해 복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哈密에 대한 주도권은 명에 있었다기보다別失八里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수연, 앞의 논문, 41쪽.

초 6일 맑음. 한밤중에 일어나 서남쪽으로 갔는데 약 150리를 가서 인가 근처에서 야영을 하였다. 撒馬兒罕에서 사람을 보내어 마중 나왔다.⁶⁷⁾

이들은 撒馬兒罕에서 보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며 이후 沙鹿黑葉 즉 沙鹿海牙로 가서 두목인 也的哥兒哈班에게 상을 내리고 米咱兒, 多磳, 石刺思, 哈刺卜蘭에서 각각 머문 다음에 21일에 비로소 撒馬兒罕에 도착한다.

21일 날씨 맑음. 일찍 일어나 서쪽으로 가서 큰 시냇물을 건넜는데 개펄이 앞으로 넓었다. 약 40여리를 가서 撒馬兒罕의 동쪽 과수원에서 막사를 치고 주둔하였다.⁶⁸⁾

撒馬兒罕은 티무르제국 건국초기의 수도였고 영락제 시기에는 수도는 아니었지만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동서 교류의 중심지였다. 1403~1406년에 티무르제국의 사신으로 갔던 스페인 가스필레의 사신 클라비호(Ruy Gozález de Clavijo, ?-1412)는 당시 각국에서 모여든 사신들 중 중국 사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클라비호에 따르면 당시 撒馬兒罕에는 각국에서 온 사절단들이 티무르제국의 최고 지도자 티무르를 영접하러 와 있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중국의 황제가 보낸 사신들도 있었다. 중국 사절단은 티무르에게 최근 소홀해진 공물을 독촉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에스파냐 사절단이 중국 황제가 보낸 사절단보다 아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본 티무르는 에스파냐 사절단을 상석으로 옮겨 앉도록 하고 중국 사절단을 아래 자리에 앉혔다. 뿐만 아니라 티무르는 대신을 통해 자신은 중국 사절단을 원수와 적처럼 생각하며 공납을 재촉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⁶⁹⁾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당시 명은 계속해서 티무르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재촉했고 이는 티무르의

67) 《西域行程記》: 初六日, 晴. 中夜起, 行西南行, 約有一百五十里, 人家近處安營. 撒馬兒罕差人來接. 陳誠 著, 앞의 책, 44쪽.

68) 《西域行程記》: 二十一日, 晴. 早起, 向西行, 過大溪水, 灘淺而寬, 約行四十餘里, 至撒馬兒罕城東果園安營. 住十日. 陳誠 著, 앞의 책, 45쪽.

69) [土耳其]奧瑪·李查 譯, 楊兆鈞 漢譯, 《克拉維約東使記》, 北京: 商務印書館, 1985年, 127쪽. (원서명: Relacion de la emabajada de Enrique III al gran Tamorian)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당시 撒馬兒罕은 각국의 사절단이 모여드는 교류의 중심지였고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撒馬兒罕에는 오늘날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벌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바자(페르시아어로 bazar)도 열렸다. 클라비호는 자신의 여행기에서 당시 티무르제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바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티무르가 즉위한 후 킵차크한국, 인도, 타타르 등 여러 나라에서 撒馬兒罕으로 가져온 상품은 실로 엄청나서 성 안에는 둘 곳이 없었고 진열하고 판매할 큰 시장도 없었다. 그래서 티무르는 사람을 시켜 撒馬兒罕城을 관통하는 상업 시장을 건설하여 그곳에 상인들을 불러 물건을 진열해 판매하도록 하였다. 모든 상품들을 이 시장에 집중시켜 판매할 계획이었다. 정식 관리 2명을 파견하여 工程을 지휘했다. 이 두 사람이 명령을 받고 나니 자연스럽게 밤낮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시장 건설 공사가 빨라졌다.⁷⁰⁾

이처럼 티무르가 통치했을 당시 撒馬兒罕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대규모의 시장인 바자가 정기적으로 열렸다. 《서역행정기》에서 진성은 撒馬兒罕 근처의 塔達哈刺赤에 머물면서 예전에 티무르가 세운 건축물에 대해 기록하기도 한다.

8월 초 2일, 맑음. 午時가 될 때 즈음 일어나 서남쪽으로 갔다. 작은 언덕을 넘어 약 30리를 가니 높은 흙집 한 채가 돌산 위에 있었다. 옛날에 티무르 부마가 지은 것이다. 지명이 塔達哈刺赤인 곳에서 야영하였다.⁷¹⁾

위의 예문에 보이는 티무르는 티무르제국의 창시자를 가리키며, 티무르 부마라고 한 것은 실제로 그가 몽골족 칭기즈칸의 후예인 가문의 여성과 결혼해 칭기즈칸 가문의 부마가 되기 때문이다.⁷²⁾

70) [土耳其]奧瑪·李查 譯, 楊兆鈞 漢譯, 앞의 책, 152쪽.

71) 《西域行程記》: 初二日, 晴. 向午方起, 向西南行. 度小岡, 約行三十里, 有高土屋一所, 居石山上, 舊時帖木駙馬所築, 地名塔達哈刺赤安營. 陳誠 著, 앞의 책, 45쪽.

撒馬兒罕은 11세기부터 티무르 왕조의 수도였고 14, 15세기 티무르제국시기에 전성기를 누렸다. 撒馬兒罕은 중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까지 통치했던 강력한 티무르제국의 경제적인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 수도였다. 《서역번국지》에는 撒馬兒罕의 도시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군주는 성의 서북쪽 가에 거주하는데 장관이 哈烈보다 못하지 않다. 성 안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거리는 가로 세로로 나 있으며 가게는 조밀하고 서남쪽에서 온 외국 손님들이 이곳에 거주했다. 물건들이 많지만 모두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다.....인물도 수려하고 기술과 재주도 다재다능했다.⁷³⁾

위의 예문에 따르면 撒馬兒罕은 웅장한 장관을 이루었으며 그 아름다움이

72) 여기서 잠시 티무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티무르는 1336년 撒馬兒罕 남쪽에 있는 케슈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타라가는 칭기즈칸이 차가타이에게 부여한 4개의 천호의 하나인 바를라스부의 명문 자제였지만 이미 권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세력을 키워가던 티무르는 1370년 4월 10일 발호 정복을 마치고 칭기즈 후손 왕자들의 지지를 받아 마와라 알 나흐르의 군주이면서 칭기즈칸과 차가타이의 후예이자 계승자임을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칭기즈 가문의 정통 후예가 아니라는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후세인의 처 가운데 카잔칸의 딸 사라이 몰크 하눔과 결혼함으로써 칭기즈 가문의 사위(귀례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후 티무르는 1381년 哈烈를 침공해 점령했고 호라산과 마잔다란을 침공했으며 1383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칸다하르를 점령했고 1384년경에는 동부 페르시아 전역을 장악하면서 승승장구했다. 또한 1386년부터 2년간은 서부이란을 2년간 침공했고 기독교국가인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까지 진격했으며 다시 아나톨리아 동부까지 점령했다. 그리고 1393년 4월에는 시라즈를 함락시켜 무자파르조를 멸망시켰고 바그다드에 입성한다. 3개월간 바그다드에서 머문 티무르는 이후 북쪽으로 옮겨서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남러시아 초원까지 침공했다. 이로써 1396년에 이르러 티무르의 서방 원정이 거의 달성되었다. 1401년 티무르는 다시 한 번 바그다드를 함락시켰고, 1402년에는 아나톨리아 동부로 세력을 확장하는 오스만조의 술탄 바야지드 2세를 오늘날 앙카라 부근에서 격파한다. 그리고 1404년 11월 티무르는 강성해진 20만 대군을 이끌고 마지막 원정지인 명으로 향했다. 이 때 티무르는 몽골에서 망명해 온 칭기즈칸 가문의 왕자와 함께 한다. 이는 명을 점령하고 그를 제위에 앉혀 몽골제국을 재건하려는 그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티무르는 원정군이 키질쿰을 횡단하여 오토라르에 이르렀을 즈음 발병하여 1405년 2월 세상을 떠났다. 고마즈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옮김,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서울: 소나무, 2005, 238-253쪽.

73) 《西域蕃國志》 <撒馬兒罕>: 國主居城之西北隅, 壯觀不下于哈烈. 城內人烟俱多, 街巷縱橫, 店肆稠密, 西南番客多聚于此. 貨物雖衆, 皆非其本地所產, 多自諸番至者……人物秀美, 工巧多能. 陳誠 著, 앞의 책, 81-82쪽.

哈烈보다 못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撒馬兒罕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물이 수려하고 재주와 솜씨가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 撒馬兒罕에 대한 진성의 기록은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관방 사서인 《명사》에 기록된 티무르는 명에 자발적으로 稱臣하고 조공을 청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洪武 27년(1394) 8월에 帖木兒가 말 200마리를 바쳤다. (이 때 올린) 表에서 아뢰기를 “삼가 생각하옵건대 대명의 위대한 황제께서 하늘로부터 성명의 천명을 받아 사해를 통일하고 인덕을 널리 펼쳐 은혜로 만물을 기르시니 만국이 기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고 특별히 황제에게 명하여 나아가 기운을 받아 만민의 군주가 되게 하셨음을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광명의 광대함은 그 밝기가 하늘의 거울과 같아서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신 帖木兒는 만 리 밖의 벽지에 있지만 삼가 성덕의 관대함이 만고를 뛰어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다시) 없던 복을 황제께서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복속하지 않은 나라를 황제께서 모두 복속시키셨습니다. 매우 먼 지방의 어두컴컴한 땅도 모두 청명하게 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자들은 편안하고 즐겁지 않음이 없고 나이 적은 자들은 성장하고 육성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선한 자들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악한 자들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특별히 遠國에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중국에 온 모든 상인들로 하여금 도읍과 성지가 부귀하고 웅장함을 보게 하여, 마치 어리석고 암담한 가운데에서 홀연히 하늘의 태양을 목도한 듯하니, 어떠한 행운이 이와 같겠습니까! 또 받은 칙서에서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역참을 서로 통하게 하여 도로가 막히지 않게 함으로써 원국의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입었습니다. 삼가 성심을 우러러보니 마치 세상을 비추는 잔과 같아서 신의 마음이 활짝 뚫린 듯 밝아집니다. 신의 나라 안의 부락이 이러한 덕음을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감격하며 경애하고 있습니다. 신은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없어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성상의 만수와 복록이 마치 친지가 영원히 끊이 없는 듯 하기만을 축원하나다”라고 하였다……홍무제가 이 표를 보고는 문장이 뛰어난 것을 가상히 여겼다. 이듬해(1395)에 給事中 傅安 등에게 명하여 璽書, 幣帛을 가지고 가서 보답토록 하였다.⁷⁴⁾

위의 예문에 따르면 티무르는 스스로 臣을 자칭하면서 대명의 위대함과 성

74)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4》, 372-374쪽.

은에 감복하며 마치 하늘을 우러르듯이 명황제에게 깊은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티무르가 성조에게 바쳤다는 이 표의 존재는 기타 사료들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表는 분명히 명의 입장에서 과장되었거나 재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홍무제는 1395년에 傅安을 撒馬兒罕으로 파견했는데 티무르는 부안 등의 사절단을 구류하고 6년간 풀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1404년에 티무르는 명을 침공하기 위해 대원정을 떠난다. 억류되었던 부안 등의 사절단은 티무르가 사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명으로 귀환한다.

성조가 즉위해서 사신을 보내어 칙서로 그 나라를 曉諭하였다. 영락 3년(1405)에 傅安 등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조정에서 帖木兒가 別失八里에게 길을 빌려 군대를 거느리고 동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甘肅 總兵官 宋晟에게 칙서를 내려 경계하고 방비토록 하였다. 영락 5년(1407) 6월에 傅安 등이 귀국하였다. 이전에 傅安이 그 나라에 이르러 억류되고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는 일도 끊겼다.⁷⁵⁾

당시 티무르는 자신에게 신속을 요구하였던 홍무제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의 오만함에 불만을 느껴 부안 등의 사절단을 억류하였다. 부안 등은 사마르칸트에 구금되었고 명의 오랜 노력과 협상 끝에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다. 1404년 사마르칸트를 방문했던 스페인 사신 클라비호 역시 당시에 티무르는 중국에게 稱臣하여 공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⁶⁾

4.2.2 哈烈

진성이 서역을 사행했던 1413년경에 티무르는 이미 명 원정길에 사망했고

75)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成祖踐阼, 遣使勅諭其國. 永樂三年, 傅安等尙未還, 而朝廷聞帖木兒假道別失八里率兵東, 勅甘肅總兵官宋晟儆備. 五年六月, 安等還. 初, 安至其國被留, 朝貢亦絕.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앞의 책, 374-375쪽.

76) [土耳其]奧瑪·李查 譯, 楊兆鈞 漢譯, 《克拉維約東使記》, 北京: 商務印書館, 1985년, 127, 159쪽.

그의 4번째 아들인 샤루흐(1409~1447)가 수도를 하렐로 옮겨 티무르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티무르 사후에 티무르제국은 한동안 정치적인 분란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는 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왕족과 유력자들의 지지를 받아 군주의 지위에 오르는 유목민의 전통 때문이었다. 본래 티무르가 사망하자 당시 타슈켄트에 주둔했던 손자 할릴 술탄⁷⁷⁾이 撒馬兒罕에 입성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할릴은 황실 재산을 탕진하여 비판을 받았다. 불만은 품은 아미들은 그를 대신해 티무르의 넷째 아들이며 이미 호라산을 지배하고 있던 샤루흐를 마와라 알나흐르의 새로운 군주로 추대했다. 1409년 撒馬兒罕을 점령한 샤루흐는 그곳을 장자인 울룩백에게 맡기고 자신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남쪽으로 천도한 하렐을 통치하였다.

샤루흐 통치 이후 티무르제국은 명과 외교관계를 회복했고 사신들을 교환했으며 상업과 농업을 일으켰다. 또한 문학과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샤루흐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티무르제국의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1407년부터 1447년의 40년간 지속된 샤루흐의 치세는 티무르제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안정된 시기였고 '티무르조의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문화, 예술에 있어서 황금기였다. 특히 샤루흐가 수도로 삼았던 하렐은 아들 울룩백이 다스렸던 撒馬兒罕과 더불어 티무르제국의 찬란한 문화를 잘 보여주었다.⁷⁸⁾ 《서역행정기》에 따르면 진성은 하렐에서 9개월이란 긴 시간을 머문다.

14일 맑음. 날이 밝자 일어나 서남쪽으로 矮山을 넘었다. 약 30여리를 가자 산 입구에서 나와 하렐성의 동쪽 가까운 곳에서 막사를 치고 주둔하였다. 헤아려 보니 여행길에서 만 9개월을 계속해서 하렐에 있었다. 진성은 출사의 제사에서 처음과 끝을 신에게 고했고 이는 <淵監類函>에 실려 있다.⁷⁹⁾

위의 예문은 《서역행정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록이다. 이 기록

77) 티무르의 셋째 아들인 미란샤의 넷째 아들.

78) 고마츠 히사오 외 씀, 앞의 책, 254-256쪽.

79) 《西域行程記》: 十四日, 晴. 明起, 向西南度矮山. 行約三十餘里. 出山口, 近哈烈城東邊安營. 計在途九匝月, 尚在哈烈. 陳公出使祭告始末, 在淵監類函. 陳誠 著, 앞의 책, 49쪽.

에 따르면 진성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티무르제국의 하렐이었고 여기에서 사행의 주요 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진성은 윤9월 14일 하렐에 도착하기 전인 9월 12일에는 車扯秃에서 티무르 제국의 술탄 샤루흐를 만나기 위해 반 개월을 기다린다.

12일 맑음. 한밤중에 일어나 서쪽으로 가서 산과 협곡을 건너 큰 마을에 도착하여 약 100리를 더 가서 車扯秃이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였다. 반 개월을 머물면서 샤루흐가 출정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⁸⁰⁾

지리적으로 하렐에 비해 거차독은 동쪽에 위치했던 곳으로 보인다. 당시 티무르의 통치자였던 샤루흐는 출정 나가있는 상황이었고 진성 일행은 그를 만나기 위해 반 개월 정도를 이곳에 머물렀다. 사절단이 당시 샤루흐를 만난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기간을 기다릴 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명성조 당시 티무르의 통치자였던 샤루흐는 그 이전의 술탄들이 명에 적대적이었던 것에 비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⁸¹⁾ 그러나 명 성조가 티무르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稱臣할 것을 요구하자 샤루흐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티무르제국의 이슬람교를 명이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당시 샤루흐는 티무르제국에서 이슬람교를 국가 종교로서 대대적으로 일으켰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샤루흐 스스로 이슬람교의 보호자임을 자처했고 종교로서 명과 대항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⁸²⁾ 따라서 명 역시 당시 티무르제국과의 미묘한 정세를 감안하여 술탄 샤루흐를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써 샤루흐의 집권 이후로는 티무르제국과 명의 관계는 호전되었다.⁸³⁾

80) 《西域行程記》: 十二日, 晴. 中宵起, 向西行, 度山峽, 至一大村, 約行一百里, 地名車扯秃安營. 住半月, 候沙哈魯出征回. 陳誠 著, 앞의 책, 48쪽.

81) 張文德, <論明與中亞帖木兒王朝的關係>, 《歷史檔案》, 2007年 第1期 59쪽.

82) 邵循正, <有明初葉與帖木兒帝國之關係>, 《邵循正歷史論文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5년, 90-94쪽.

83)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영락) 7년(1409)에 부안 등이 돌아올 때 왕이 사신

진성의 《서역번국지》에도 당시 수도였던 哈烈의 웅장한 도시 풍경과 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객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나라의 풍속이 상당히 사치스러웠다. 옷은 선명한 색깔을 좋아해서 타는 말의 안장을 금과 은 그리고 고운 색깔로 장식했다. 앞뒤에는 카펫을 깔고 방울을 달았다. 호족 가문의 자제들은 비취로 장식한 비단 도포를 입고 진주와 보석을 펜 요대를 찾으며 도검에는 금과 은을 새겨 넣거나 머리에는 보석 비녀를 하여 사치스러움을 드러냈다.⁸⁴⁾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진성이 방문했을 당시 哈烈은 티무르제국의 수도이자 이슬람 문화의 중심으로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다. 말의 안장까지 금과 은으로 장식할 정도로 사치스러웠고 귀족 자제들을 묘사한 것 보면 비취 장식의 도포를 입고 비단과 보석을 펜 허리띠를 찾으며 검에는 금과 은을 새겼고 머리에는 보석장식을 했다. 哈烈의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도시풍광은 진성이 방문할 당시 명과 티무르제국이 바야흐로 예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일반적으로 역사를 공부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明史》 혹은

을 달려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이로부터 혹은 해마다 혹은 격년마다 혹은 3년마다 (티무르제국은)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영락) 13년(1415)에 사신을 이달과 진성 등에 달려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갈 때, 진성 및 중관 노안에게 함께 가도록 명했고 그 우두머리 兀魯伯 등에게 백은과 채폐를 하사하였다(七年, 安等還, 王遣使隨入貢. 自後, 或比年, 或間一歲, 或三歲, 輒入貢. 十三年遣使隨李達陳誠等入貢. 暨辭歸, 命誠及中官魯安偕往, 賜其頭目兀魯伯等白銀綵幣) 동북아역사재단 위임, 앞의 책, 375-376쪽.

84) 《西域蕃國志》 <哈烈>: 國俗尚侈, 衣服喜鮮色, 雖所乘馬驟鞍轡, 多以金銀彩石飾之. 遍身前後, 覆以氍毹, 縣以響鈴. 豪門子弟俱係翡翠妝綉衣袍, 珍寶綴成腰帶, 刀劍鞘飾以金銀, 或頭簪珠寶, 以示奢華. 陳誠 著, 앞의 책, 70쪽.

《明太祖實錄》과 같은 관방에서 주관한 正史의 기록들을 가장 먼저 참고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서들은 역사를 연대 혹은 주제별로 잘 정리해 놓고 있어서 보기 편할 뿐 아니라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방 사서의 기록들에 의거해 그 당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에 대한 접근은 한 가지 한계를 간과하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정사 역시 문자를 이용한 기록이므로 문자 기록의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모든 문자로 된 기록은 그것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맥락과 주관적인 해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명사》 <서역전>은 청대의 서역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명태조실록》은 황제에 대한 기록이므로 황실에 대한 칭송과 자부심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맥락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텍스트에 접근해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객관적인 역사를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역사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역사 외의 使行錄과 지리지 등의 방증 자료들도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역행정기》는 15세기 초 서역에 대한 실제 사행록이므로 당시 명과 서역간의 관계를 더 근접해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서역행정기》에 대한 연구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서역행정기》를 중심으로 명 성조 영락제 당시에 진성이 바라본 서역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서역행정기》의 내용이 간결한 까닭에 당시 서역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기타 방증 자료들을 참고함으로써 서역의 실제 모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진성이 《서역행정기》를 기록했던 당시 서역은 명제국의 세력이 거의 미치지 않았던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이었고 상당히 강한 세력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역행정기》는 티무르가 명 원정길에서 사망하고 그의 4번째 아들인 샤루흐가 哈烈로 천도해 티무르 제국의 제 2의 전성기를 열었던 시기에 완성되었다. 샤루흐 통치 기간에 명과 티무르제국의 관계는 예전보다 개선되었지만, 진성의 使西域은 티무르 제국과의 냉전 시기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성의 使西域 당시 서역은 여전히 강한 세력으로 존재했고 명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대상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대상과의 우호관계를 위하여 진성은 끝없는 사막과 돌산이 이어져 있는 험난한 행로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5차례나 使西域을 감행했다. 당시 使西域은 別失八里와 티무르의 사신 구금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었다. 진성의 《서역행정기》는 대명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했던 西域을 대상으로 天朝大國의 위엄을 전파하고 四方이 中華로 귀속하는 천하를 건설하고자 했던 15세기 초 명의 정치적인 열망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노력의 과정은 명목상 '조공'의 형태를 빌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신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조공을 회유하고 심지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이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 參考文獻 >

- 寺田隆信·増井經夫 著, 宋正洙 옮김, 《중화제국의 완성》, 서울: 문덕사, 1992.
- 르네 그루쎈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서울: 세계절, 1998.
- 우덕찬, 《중앙아시아 개설》,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세계절, 2003.
- 고마츠 히사오 외 씀, 이평래 옮김,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서울: 소나무, 2005.
-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漢書 外國傳 譯註下》 <西域傳>,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新唐書 外國傳 譯註下》 <西域傳>,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明史 外國傳 譯註4》 <西域傳>,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2.
- 楊建新, <西域辨正>, 《新疆大學學報》, 1981年 第1期.
- [漢]司馬遷, 《史記(全十卷)10》, 北京: 中華書局, 1982年 11月 第2版.
- [土耳其]奧瑪·李查 譯, 楊兆鈞 漢譯, 《克拉維約東使記》, 北京: 商務印書館, 1985.

- 邵循正, <有明初葉與帖木兒帝國之關係>, 《邵循正歷史論文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5.
- 余太山 主編, 《西域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6.
- 田衛疆, <西域的概念及其內涵>, 《西域研究》, 1998 第4期.
- 馬駿騏, <陳誠和《西域行程記》>, 《貴州社會科學》, 2000年 第5期.
- [明]陳誠 著, 周連寬校注, 《西域蕃國志》, 北京: 中華書局, 2000.
- [明]陳誠 著, 周連寬校注, 《西域行程記》, 北京: 中華書局, 2000.
- 張文德, <周連寬先生校注本《西域行程記西域蕃國志》拾遺>, 《西域研究》, 2004年 第3期.
- 王繼光, <《西域行程記》與別失八裏西遷考>, 《西域研究》, 2007年 第2期.
- 張文德, <論明與中亞帖木兒王朝的關係>, 《歷史檔案》, 2007年 第1期.
- 張幹, <陳誠西使路線東段相關歷史地理研究>, 暨南大學 歷史地理學 碩士論文, 2008年 5月.
- 滕淋, <明朝外交使節研究>, 山東師範大學 歷史地理學 碩士學位論文, 2010年 4月 20日.
- 趙楠, <《西域行程記》和《西域蕃國志》>, 《西域圖書館論壇》, 2012年 第4期.
- 王繼光, 《陳誠及其西使記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4年 6月.
- 郭嬌, <《陳竹山文集》研究>, 新疆師範大學 中國古典文獻學 碩士論文, 2015年 5月.
- 姚曉菲 編著, 《明清筆記中的西域資料匯編》, 北京: 學苑出版社, 2016.
- 葛兆光, 《歷史中國的內與外-有關中國與周邊概念的再澄清》,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17.
- 宮崎市定, 《アジア史論考(下卷)》, 東京: 朝日新聞社, 1976.

< Abstract >

Xiyuxingchengji and the West in the Early Ming Dynasty

Song, Junghwa

Xiyuxingchengji is the travel journal of Chen Cheng who visited the West from the 11th to the 12th year of Emperor Yongle of the Ming Dynasty(1413~1414) and presented his journal to the emperor. It records the travel schedule of the delegations for 2 years by date, events, and itinerary. Emperor Hongwu of the Ming Dynasty aimed at driving out the power of

Mongolian and building a powerful empire of the Hun. Emperor Yongle dreamed of the world where the foreign invaders of all directions brought tribute to China. Therefore he expanded the national territories and sent Zhenghe to Southeast Asia to announce the power and grace of the Emperor. However Ming could not rule the West. The West was ruled by the Timur Empire with a powerful army and the legacy of Islams. The Timur Empire conquered the entire Central Asia and even India and Europe. Therefore Ming needed to maintain amicable relationships with Timur Empire for its own substantiality. *Xiyuxingchengji* is the record of Chen Cheng who was the envoy of Ming to travel to the West despite the hardships. This study discussed *Xiyuxingchengji*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Ming and the West at that time. Also, Ming at that time did not receive tributes from the West.

Key words: Xiyuxingchengji, the West, Chen Cheng, Emperor Yongle, Ming Dynasty, Timur Empire, Central Asia

| | | | | |
|-------------|-------------|-------------|-------------|-------------|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2019. 4. 30 | 2019. 5. 10 | 2019. 5. 15 | 2019. 5. 27 | 2019. 6. 30 |